

5·18 당시 경찰 상황일지도 조작됐다

<전남도경>

전남경찰 보고서... 문건 작성 주체 없고 있지도 않은 장갑차 피탈 기록도

경찰 警→敬 잘못 쓰기도... 5·18 기록 조작 확인 진상규명 난항 우려

전남경찰이 타 기관에 의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경찰기록이 왜곡·조작된 사실을 밝혀냈다.

최근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전투기 폭격설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5월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기록 조작'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진상규명에도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단체 등에서는 5·18 당시 계엄군과 경찰, 시민 등의 양심적 증인과 제보만이 5·18 진상규명을 밝혀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

11일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이 발표한 '경찰관 증인과 자료를 중심으로 한 5·18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 보

고서에 따르면 '광주시민이 먼저 경찰서 부고를 탈취해 총을 겨냥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신군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전남도경 상황일지'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경 상황일지'는 시민에 의한 총기피탈 사건이 도청 앞 집단발포가 일어나기 전인 1980년 5월 21일 오전 8시, 9시 두차례 나주 반남지서와 남평지서에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반남지서에서 총기 피탈은 없었다. 전남경찰은 내부 문건 작성 시 '전남경찰국'이라고 표기해왔으나 이 문건은 '전남도경'이라는 표현을 썼고 경찰은 표지 밑에 문건을 작성한 주체를 적지만 이 문건은 없다.

또 경찰을 표현하는 한자도 '경계할 경'(警)을 써야하지만 '공경할 경'(敬)으로



잘못 적혀 있다. <사진> 특히 당시 경찰은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문건에는 '경찰 장갑차 4대'라는 군 용어식 표현이 기록돼 있다.

문건명과 내용이 다른 점도 성급히 문건을 조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상황일지는 대개 수기로 작성하지만 '전남도경 상황일지'는 타자기로 작성됐고, 글꼴도 당시 경찰이 쓰던 것이 아니었다는 게 전남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에 미뤄 1988년 국회 5·18 청문회를 앞두고 군 내부에 설치된 '511분석반'이 조작을 주도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511분석반'은 보안사가 주도하고 국방부·육군·합참·한국국방연구원 등이 참여해 만들어진 20여명 규모의 비공개 조직이다. 광주에 투입됐던 7·11공수여단 전투상보, 육군본부·전투교육사령부·31사단 상황일지의 도청 앞 집단발포 누락과 21일 오후 4시 이후에 진행된 계엄군의 도청 철수를 집단 발표 전인 21일 낮 12시로 기록하고 있는 경찰의 진상보고도 511분석반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당시 근무자 중 일부는 5·18 직후 보안사로부터 '평생 합구하러'는 협박성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면서 "일부 증언자는 이름을 가명으로 써주라고 하는 등 아직도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단풍 물들어가는 캠퍼스의 가을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11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교정의 단풍잎들이 빗물을 머금은 채 빨갛게 물들어 가고 있다. 기상청은 12일 광주지방의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15도 정도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을 것으로 보고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수·광양 등 전국 국가산단 인근 주민 '산단병'으로 매년 1861명 초과 사망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

의료비 1453억 추가 부담

여수산단 등 국가산업단지에서 내뿜는 공해물질로 인근 주민들이 연간 1861명이 추가 사망하고, 의료비도 매년 1453억원가량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 보고서가 11일 공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받은 '국가산단 지역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사업 종합평가'(2017년 2월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여수, 광양, 울산, 시화·반월, 청주, 대산, 포항 등 산단이 위치한 도시의 경우 연간 2만3129명이 사망하는데, 이 중 1861명이 이른바 '산단병'(산단 공해물질 노출에 따른 질환)으로 추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선, 지난 2015년 전국 사망률(인구 10만명당 541.5명)에 산단

인근지역 연간 사망자수 4462명(산단 인근 주민수는 82만4074명)과 초과사망 비율(8.046%)을 적용, 초과사망자가 연간 359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범위를 산단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사망자 수인 2만3129명(전체 인구는 427만1310명)으로 확대시키면 연간 산단병에 따른 초과사망자는 1861명이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초과사망자 발생비율(8% 수준)은 연구팀이 5년 간 개별 연구구역에 참가한 전문가와 환경보건 전문가들에게 산단의 영향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을 통해 얻었다고 한다.

산단지역은 사망비율도 높다. 전국 평균을 1로 했을 때, 포항(1.37배), 여수(1.22배), 울산(1.18배), 청주(1.16배), 대산(1.08배), 광양(1.08배) 등 조사대상 산단 7곳 중 6개 지역 사망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산단 지역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추산했다. 연구팀은 피부질환, 호흡기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세 가지 질환별로 전체 국민의 의료비를 구한 뒤, 산단 지역 인구의 비율을 적용했다. 여기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얻은 각 질환별 산단 지역의 초과 발생 비율을 적용한 결과, 산단지역 도시에 사는 시민들은 연간 1453억원(11.7%)의 진료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산단지역은 실제로도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여수의 경우 스티렌 배출량이 전국 평균 보다 높고, 환경측정값 역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스티렌의 경우 암과 악성종양, 기관지 천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용득 의원은 "국가산단지역 환경보건 문제를 공유하고, 정부를 상대로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도입, 오염물질 사업장 단속강화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권역 472억

영남권역 4244억

교통 인프라 예산 지역편중

정부가 수도권 및 지방 5개 광역시의 약화하는 광역교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교통시설사업의 광주광역시권 사업 투자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11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추진 중인 광역교통시설사업에 광주권역은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4년간 4개 사업에 472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체 사업비 3조 8069억원의 1.2% 수준이다.

최 의원은 "영남권은 부산·울산권 14개 사업에 1588억원, 대구권은 7개 사업에 2656억원 등 21개 사업에 4244억원이 반영됐다"며 "영남과 호남의 사업비 차이가 10배 가까이 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중기 광역교통시설사업은 향후 20년 동안 광역단위 도시의 중·장기 플랜이다"며 "세부실행 계획을 변경하거나 정부의 별도의 지원이 없다면 광주권의 (교통시설) 소외는 볼 보듯 뻔하다"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노인 자전거 사고 요주의 ▶6면

올 겨울패션 벤치파카 대세 ▶15면

버나디나의 KS 출사표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평론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ONE-STOP 양식창업지원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공모

2017년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실시하는 「ONE-STOP창업지원교육과정」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7년 9월 한국어촌어항협회이사장

- 1. 교육과정** ONE-STOP 양식창업지원 교육
- 2. 모집인원** 총 210명 (창업지원교육 110명, 창업컨설팅지원 100명)
- 3. 신청자격**
 - ▶수·해양계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수산업종사자 또는 경영자
 - ▶양식창업을 희망하는 자 등
- 4. 지원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접수)기간 : 2017. 9. 28 ~ 10. 17(3주) ※ 10. 17(화)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서 교부 : 경남/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 ▶신청서 접수 : 경남/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 경남센터 :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 (통영항 여객센터미널 201호)
E-mail : pmj053@tjpa.or.kr
 - 전남센터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무등빌딩 16층)
E-mail : jhwon2002kr@naver.com
 - ▶교육생선발 : 2017. 10. 18 ~ 20(개별통지)
- 5. 제출서류**
 - ▶교육 신청서(사진 3×4cm 부착) 1부
 -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6. 교육생 선발** ▶신청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교육생 선발위원회에서 심사 후 개별 통지

- 7. 교육과정 및 일정**
 - ▶교육과정 : 창업실무(이론), 심화교육, 현장실습, 창업컨설팅지원
 - 대상품종(9종) : 넙치, 뽕장어, 관상어, 김, 전복, 능성어, 해삼, 흰다리새우, 큰장게미새우
 - ▶교육기간 : 품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창업실무(이론) / 심화교육 : 각 2주 / 32시간 씩
 - 현장실습 : 2주 / 10일(토, 일요일 제외)
 - 창업컨설팅 지원 : 1~2회(변경될 수 있음)
 - ▶교육장소
 - 창업실무, 심화교육 : 경상대, 한서대, 조선대
 - 현장실습 : 연구기관, 선진양식장 등
 - 창업컨설팅 지원 :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 품종에 따라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기관 : 경남/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 8. 교육비**
 - ▶국비지원
 - ※ 교통비는 지원하지 않음
- 9.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T.(055)642-5762, 5702~4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T.(062)220-0555